



2004년
1월 15일
제 65호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개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모임시민운동
세계복음화기독교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승룡 Fax. (033) 257-1260 Tel. (033) 256-1260 춘천시 효자1동 373-90 (우200-091)

신년사



오승룡 목사
기독교 연합회장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거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게 다시 사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제21:2-4)

21세기의 춘천이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장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땅 춘천 위에 장막을 치시고, 춘천과 함께 하사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21세기의 세계 복음화에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4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하심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04년 춘천 기독교 연합회는 지난 수년간 선배 목사님들과 춘천의 300여 개의 모든 교회의 수고로 인하여 춘천이 성시와 운동을 지속하였으며, 이제 그 수고의 열매를 맺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연합회는 향후 7개년의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2010 vision(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도시를 행한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운동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도시로, 도시 전체에 거룩한 문화의 열매가 풍요로운 도시로, 모든 축복을 입당하여 그들을 섬기며,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여

유하는 선교의 도시로 춘천이 유복사가 됩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의 이 꿈은 한결 같았습니다. 특별히 올해에 “성시 축제”로서 우리의 꿈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2004년에는 기독교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같은 꿈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화하는 각 가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각 학교와 직장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야 합니다. 또한 특수한 목적으로 모인 선교단체들과 활동하는 모든 거룩한 꿈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창조를 이루셨듯이 우리의 꿈도 질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음과 같이 합심하여야 합니다.

1. 복음화의 꿈(vision) 아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거룩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는 땅이 바로 춘천이 되어야 한다는 꿈, 이 꿈 아래 우리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다고 저울질 하던 것을 이제는 동등함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서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여 연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서로를 존중하여 여기는 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생명이 관하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지만, 도시를 복음화 하려는 거룩한 꿈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섬김의 도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라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 주며 섬기신 것처럼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를 섬길 뿐 아니라,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섬김의 도로써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신을 죽이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보다는 너를 위해서, 우리보다는 더 큰 우리를 위해서 서로가 섬기는 섬김의 원리로 출발하게 되길 원합니다. 단체의 크고 작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한 정지로서, 우리는 섬김의 도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만지로 거룩한 도시의 꿈을 섬김을 나타내 보여야 하겠습니까.

3.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달란트들이 잘 개발되어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역량은 매우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 역량을 감추어 두었었다면, 이제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가진 역량을 춘천이 거룩한 도시로 향하는 그 꿈 가운데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춘천에는 어떤 교회든지, 어떤 기독교인이든지 누구나 관심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기도로서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불씨 같지만, 그 불씨 모이면, 큰 불이 되고 도시를 거룩함으로 불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군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춘천을 거룩하게 하는 꿈으로 부르셨습니다. 2004년 기독교 연합회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복음화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춘천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멋진 한 해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첫 예배 드린 강원도청 선교회

“강원도청직장선교회(회장 최형선장로)는 지난 1월 12일 아침 7시 30분 도청 및 사업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이명숙 집사의 사비로 찬송과 성경봉독에 이어 조종환 지도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2004년에는 하나님을 따라 더욱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강조했다. 회장 최형선 장로는 합심기도를 인도하며 도청발전과 선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했으며 예배 후, 이봉원 부회장이 기도하고 조찬을 나누며 도청 선교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필리핀 팔라완신학교에 도서 기증한 감리교 동부연회 남섬교회 연합회



회장 심인섭 장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남섬교회 연합회(회장 심인섭 장로, 춘천신성교회)는 연합회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팔라완 지역에 신학교를 개척하고 신학도서 원서 330권과 도서구비비 300만원 등을 함께 전달하였다. 심인섭 회장은 인기 중 해외선교에 교회 개척을 위한 1만불 모금운동을 펼쳐 현재까지 550만원의 금액을 확보한 상태이며 동부연회 감리교 평신도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이들을 추천받아 “모범 평신도 인물전”을 발간하기 위하여 편집중 있다고 밝혔다.

춘천기독교연합신년교례회 대성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오승룡목사)는 2004년 1월 3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에서 춘천지역 교계 지도자와 기관단체장 1백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2004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예배는 남춘천 감리교회 유진영 목사의 사회로 다듬어 찬송을 부르고 연합회 부회장 한주식 장로의 대기도로, 성경교단 사모로 구성된 성가대의 특별찬양이 이어졌다. 연합회장 오승룡 목사(춘천성결교회)는 “섬기며 사는 삶”이란 주제로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중경회장 김구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와 장로교연합회장 문정집 목사(사우주장로교회), 침례교지부회장 최현목 목사(남춘천침례교회)가 나와 민족, 춘천 성시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기도를 했다. 예배 후 월드비전 강원지부장과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총무 지용환 목사(은혜장로교회)의 광고 및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한 참성자들에게 감사했으며 이어 중경회장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의 축도로 신년교례회를 마쳤다.



2003년도 감리교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동부연회 동문회장 원주개운교회 백용익 목사 선출

- 부회장직에 춘천제일교회 원종국 목사 -



회장 백용익 목사



부회장 원종국 목사

동부연회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동문회회는 지난 2003년 12월 21일 원주개운교회에서 춘천제일교회 백용익 목사(원주개운교회)를 선출하였다. 연회총무에 방인순 목사, 부회장에 신정호 목사(영월대교회)와 원종국 목사(춘천제일교회)를, 신관주 목사(원주명원교회)는 총무로 선출되었다.

또한 이상목 목사(춘천가신교회)가 회계를 담당하고 고문서 목사(광장전교회)는 서기를, 최종국 목사(정신일교회)와 권순철 목사(아래교회)가 감사에 선임되었다.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성 코레스로 콘도에서 열린 동문회에서 초청강사 한주식 감독이 “바람직한 목회자의 삶”이란 주제로 가진 세미나를 마쳤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대신총회신학교 · 춘천분교

2004년 신 · 편입생 모집요강

“21C 개혁신학의 요람” 본 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직영 대한신학대학대학교 부설 목회자 후보생 교육기관으로서 신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정통 무오한 유익의 법칙임을 믿고 웨스트민스터 교리표준서를 신조로 하는 신학원으로 교역자 및 평신도 정예요원훈련 및 국내외 선교를 위한 지도자와 전문인력을 배양함에 있다.

【학 교 교 훈】

주님께 충성(忠誠)
타인에게 겸손(謙遜)
자기에게 진실(眞實)

총회장: 김성복 목사
분교이사장: 김광섭 목사
(춘천지방교회)

이사장: 최복규 박사
분교학장: 사공정 목사
(춘천중앙장로교회)



분교 이사장
김광섭 목사
(춘천지방교회)



분교 학장
사공정 목사
(춘천중앙장로교회)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직영교역자양성원 - 대신총회신학교 · 춘천분교 모집요강 -

초교과적으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I. 모집요강

모집학과	모집과정	정원	구분	자격
대학부과정 (Th. B)	신학과	00명	아간	고졸, 동등자격자
	교육과			
	선교과			
	예언도사과			
평생교육원 (신학연구)	평신도지도과	00명	아간	세례교인, 학력제한없음 지교회에서 교육훈련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II.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 1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daeshinjc.tc)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 1부
- 영세장(노회장) 추천서 - 1부
- 만일합판 사진 (원서 부록 포함) - 5매
- 주민등록증본 - 1부
- III.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원서): 2003년 12월 6일 ~ 2004년 2월 28일
- 전형방법: 서류와 면접 ● 면접일: 2004년 2월 28일(토)

- 합격자 발표: 면접 후
- 전형료: 원서대(5,000원) / 전형료(학부과정-3만원)



Homepage: http://daeshinjc.tc (본교) / 편입부: 200-944 강원도 춘천시 회계동 669-2 / TEL: 033257-2001
교무: 남기복 목사 HP: 016-793-1757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대한신학원 춘천분교

